

제143회 발명교실

2월10일 성공사례 등 발표

본회가 주최한 제 143회 발명교실이 지난 2월 10일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 되는 발명교실은 이번에도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발명교실에서는 한진엔지니어링 대표 노연구 사장의 성공사례 발표와 김영화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제도 해설 그리고 새생각회 강신목 회장의 발명의 발상기법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발명가의 성공사례를 간추려 소개한다. <이두성 記>

사우나 겸용 온돌메트리스 발명가

한진엔지니어링 대표 노연구

‘발명품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계절과 시기도 무척이나 중요하더군요 그것도 하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렇다 보니 ‘계절이 발명가를 탄생시킨다.’는 말이 맞는듯하다.

옛부터 우리 국민은 폭신한 침대 보다는 따뜻한 온돌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온돌을 설치한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착안해서 온돌 메트리스를 발명한 발명가가 있다.

‘제가 처음에 발명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는 지구촌의 공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시작하였습니다.’ 공해방지와 건강을 위해서 착안한 것이 바로 온돌이

다. 옛조상들의 슬기를 재현시키면서 우리 고유의 구들방의 정감도 느낄 수 있는 온돌.

‘찜질도 하고 편안히 누워 잠도 자고 사우나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발명가 노씨가 이 제품을 탄생시키기 까지는 많은 노력의





결과가 있었다.

우선 건축온돌과 습식온돌이 ■내에 미치는 조직분자의 방출량을 측정 검토하였다. 그리고 온돌문화의 신비를 밝혀 내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열성도 보였다.

그 결과, 현대의 발달된 문명 가운데 산업화로 야기된 공해물질과 각종 악성 유해파로부터 건강을 해치지 않는데 역점을 두고 온돌메트리스의 제작에 돌입하였다.

발명가 노씨에게는 옛조상의 슬기와 현대과학의 맥을 정확히 짚어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온돌메트리스를 제작함에 있어서 우리고유의 구들효과라고 하는 한증막이나 고열의 사우나와는 온도의 편차에서 다른 방법으로 구상하였다. 재질 또

한, 돌과 세라믹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원적외선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이 태어나서 수면으로 소비하는 시간이 하루에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봐도 잠자리는 여간 중요한게 아니다. 더구나 잠자리에서 인체에 새로운 리듬과 활력을 제공해 주고 원활한 신진대사와 혈액순환까지도 촉진시켜준다면 그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발명가 노씨의 끈질긴 노력과 연구는 원적외선의 특수 필립히터를 사용한 온돌메트리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였다.

온돌 메트리스를 판넬 형태로 제작하고 보니 설치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전자동 콘트롤을 부착하여 에너지도 약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얼마전에는 병풍속에 전열기를 설치하여 히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병풍히터도 발명하여 장안에 화제가 되었던 발명가 노씨.

노씨에게 있어서 겨울이라는 계절은 아무래도 행운을 가져다 주는 계절인 모양이다.

‘발명품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계절과 시기도 무척이나 중요하더군요. 그것도 발명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비결입니다.’

겨울이 없었다면 아마도 노씨의 발명품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발명품에 관한 각종 광고 지원은 물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노씨.

‘앞으로도 저는 저희 회사 직원들을 건강 관련교육이나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더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히는 그는 건강관련 사업쪽에 이바지함은 물론 국내에서도 건강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데 선구자가 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 하겠다고 다부지게 말했다. **발특9602**